

스포츠 손상에서 슬관절 기능검사의 의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김진구 · 문형태 · 하정구 · 김지영 · 김민건

서론

전방십자인대 손상후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라크만 검사, 전방전위검사, KT-1000등의 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슬관절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은 동적인 슬관절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동적인 슬관절 기능검사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의 성인 남성에게 동적인 슬관절 기능검사를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정상 성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한발뛰기(One leg hop test), 세발 뛰기(triple leg hop test), 3종 기능성 수행 평가(three functional performance test, TFPT, Carioca test, shuttle run test, Co-contraction test)등 총 5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검자의 연령은 25세에서 41세로 평균 28.4세였으며 Tegner activity score는 평균 6.2점, Lysholm score는 평균 98.2점이었다. 각 검사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키, 몸무게, 연령과의 상관관계, 우세다리(Dominant limb)와 비우세다리(non-dominant limb)에서의 결과차이, 뛰기검사(hop test)와 기능성 수행 평가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검사한 5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규분포를 하였으며, 키, 몸무게, 연령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뛰기검사는 우세다리와 비우세다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발뛰기는 기능성 수행 평가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세발뛰기는 기능성 수행평가 3가지 항목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전방십자인대 손상후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3종 기능성 수행 평가를 시행하고 본 연구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슬관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세발뛰기 검사는 이의 선별검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